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장애인주일 메시지 ☉

사랑의 관심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풀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 부자 집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온 몸에 상처투성이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후,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문을 살살이 살펴봐도 부자가 지옥에 갈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를 발로 찬적도 없고, 더럽다고 동네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으며,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무관심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v.25) 부자는 그의 대문에 누워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관심의 반대말이 “서로 사랑”이라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전체 인구의 10%정도 된다고 하며 그분들의 80%가 선천적이 아닌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관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고, 눈과 입이며, 그 사랑의 뜨거워진 가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에서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 부서로서 사랑부와 에바다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첫 발걸음은 “사랑의 관심”입니다. 그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시선과 미소입니다. 그분들을 붙들어 주고 엘리베이터를 양보하고,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과 배려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다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장애로 인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많은 분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통로, 치유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성금요일 금식

수요다락방 리더 훈련은 종전대로

오늘부터 부활절(4월24일) 전까지 7일간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4월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새벽기도회(오전 5시30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행적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우리 주님이 못 박하신 성 금요일(4월22일)에는 해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부활주일에 드리는 금식헌금은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예배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녁 8시부

터 본당에 모여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별표참조)하고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오전 5시에 특별 새벽예배(찬양: 호산나찬양대)를 드리고,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지휘: 류태왕 집사, 오르간 차주연 성도)가 준비한 부활절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요일	종려주일	일	화	수	목	성금요일	토
성경/사건	승리의 입성 (막11:1-11)	성전을 두 번째 청결케 하심 (막11:15-26)	유대인들과 마지막 논쟁 (막11:27-12:40)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 (마24:25) 예수의 발에 두 번째 기름부음 (눅7:3-50)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 (막14:10-11)	베다니에서 휴식	유월절 준비와 음식물 먹다 (막14:12, 31) 예수, 겹새마네에서 체포되심 (막14:32-52)	직전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야간재판 (요18:12-13)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야간재판 (막14:53-72) 산헤드린에서 아침재판(눅22:66-71) 빌라도 앞에 나타남(눅23:1-5) 예수 예루살렘 서대(눅23:6-12) 빌라도 앞에 두 번째 서대(눅23:13-25) 십자가에 달리심(막15:16-41) 무덤에 매장(막15:42-47)	무덤에서 지내다
설교자	박종민 목사	정수길 목사	유문건 목사	박경일 목사	박진아 목사	한상은 목사	서명철 목사

서울음악교실 개강

제6기 서울 음악 교실이 오늘 오후 1시반에 601호실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자 하는 성도 누구나 환영하며 6주간에 걸쳐 음악 기초이론과 호흡법, 발성법 등을 집중 지도 받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장한 어머니상 시상

우리 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년전 부터 자녀를 셋 낳은 가정의 어머니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20년후에 장 장학금 통장을 5월8일에 시상한다.

2011년 호산나대학 비전과 목표

가능성을 찾는 슬기로운



이동귀 집사(호산나대학 부학장)

호산나대학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 하심과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절절한 사랑으로 2011년 은혜로운 봄을 맞았습니다.

호산나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발달장애인 사회통합 평생교육 모델 구축"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그 가능성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교수진의 모든 슬기를 모아 비전 구현을 위해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호산나대학은 지역사회 곳곳에 취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지적인 삶의 구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까지 2회 졸업생들 중 75%가 취업되어 사회 각 분야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훌륭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관련 분야로 강동성모 노인병원, 서울서부시립노인요양병원, 청암노인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직관련 분야로 KBS총무국, 문정초등학교, 가동초등학교 도서관, 송파구립도서관, 송파우체국, 조은프로세상, 트랜스코스 모코리아 등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서비스 관련분야로 롯데리아, 맥도날드, 빙스, 크리스

피도넷,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등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심어진 우리 호산나대학 학생들은 남들보다 여러 날 물을 먹고, 남들보다 늦게 씻을 티우고, 남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서툰 봉오리들을 맺어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깨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곳에서 세상을 알아가고 삶의 터를 만들어 가는 호산나학생들이 속해 있는 그 어디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하늘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속도대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학생들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호산나의 비전과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며 귀한 소망을 품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16만 지적장애인들의 소망, 구원의 나팔 소리, 호산나대학과 호산나대안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씨는 해마다 다르다. 올해는 4월17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하고 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일을 시작하는 날이다.

4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필사> 12교구 이민화 권사
<1독> 6교구 강영순1 권사 7교구 채복순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화요정오음악회

4.19(화) 정오, 본당(관람은 3층)

강민정 / 오르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졸업(K.A)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K.E)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성공회대, 서울신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시온찬양대 CD 출반

우리 교회 수요2부예배를 담당하는 시온찬양대(부장: 신용식 장로, 지휘: 백경화 집사)는 2010년 수요예배, 특별찬양, 송구영신예배에서 드린 찬양곡들 중에서 18곡을 선별하여 CD를 제작하였다. CD는 따로 판매를 하지 않으며 원하는 성도는 시온찬양대에 문의하기 바란다.



Meditations on Jesus' Suffering



By Rev. Joshua Cho

The sufferings of Jesus Christ culminated on Good Friday. Why is "Good Friday" called good? How can the violent suffering of an innocent man ever be called good? Whenever I reflect upon the sufferings of Christ, my mind goes to a well-known scene in

the movie, "The Passion of the Christ," where two Roman guards repeatedly flog Jesus for five minutes (but what seems like an eternity). This scene, and the movie as a whole, was helpful to me, because it brought me closer to Jesus' suffering in a way that I never could in my imagination. However, what the movie failed to do was bring me to the very heart of Jesus' suffering, which was deeper than his physical suffering.

Jesus' prayer in John 17 describes the perfect fellowship within the Trinity (see John 17:5, 13; see also 1 John 1:3-4). This fellowship was the pinnacle of joy and happiness, something which this world can only imagine (for example, the joy of a family, or the joy of romantic love), but never

fully understand. But Jesus left the joy of heaven to be born into this world. And this perfect fellowship was broken when Jesus went to the cross. At the cross, Jesus was nailed as a substitute for sinners. The Father rejected the Son and poured out His righteous wrath upon him. I believe that Jesus' physical suffering was just a visual aspect of his overall suffering. As Jesus suffered physically, he was suffering in a far greater way spiritually. Not only that, but Jesus' physical suffering was a representation of his spiritual suffering. Since we cannot see or understand his spiritual suffering, God provided us with a physical picture of his spiritual suffering.

The reason wh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is that it highlights the uniqueness of his suffering. As we know, there were many people in history who also experienced Roman scourging and crucifixion. Jesus' suffering was not unique in this regard.

But his sacrifice was unique. He was not just an innocent man who was brutally killed. He was the Son of God, the One who shared heaven with the Father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remained faithful to His Father throughout his earthly ministry. This Son was disowned by his Father. His suffering was infinite. People have experienced many atrocities in history (including Korean

history), but these are still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infinite suffering that Christ endured.

But why did Jesus have to endure this infinite suffering? It was the price for sin. I'm not talking about sins such as missing Sunday worship because of hagwon, or stealing a pen. Yes, these are sins, but they are like the splattering of a stomp in a puddle. I'm talking about the heart of sin, which is turning away from God as my only true joy and finding joy in the idols of this world. I'm talking about the sin of loving my family more than God, loving success more than God, and loving comfort and security more than God. This is a rejection of God, and an act of infinite dishonor to God. This deserves infinite punishment, which is what many people will experience forever in hell. Jesus had to receive infinite suffering, because of the infinite dishonor that we have shown the King of the Universe.

This is why "Good Friday" is so good. Jesus endured the infinite suffering that I should have received. Every whip on his back should have been a whip on my back. The nail that pierced his hand should have pierced my hand. The wrath that was poured out on him should have been poured out on me. But by faith, I have been spared, because he was not. How good is "Good Friday"! How great are His mercies!

장애인 주일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박나옥

(호산나대학 졸업생 심서현 母)



엄마는 아직도 처음 널 만났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너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온순하고 겁이 많은 성격인데다가, 정신지체 2급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너, 그 탓에 학창시절 내내 주눅이 들어 자기표현도 못하고, 친구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내며 힘들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그게 다 엄마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실 엄마는 널 더 공부하게 해 주고 싶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에게 더 이상 힘든 학교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단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호산나대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널 위해 좋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고민도 많이 했었어. 하지만 호산나대학에 대한 부학장님의 설명을 듣고 너를 호산나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단다.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있는 곳, 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곳,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실 교수님들이 있는 곳, 취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 홀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곳, 호산나대학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마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호산나대학은 엄마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곳이었다.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목소리도 작아서 엄마 마음을 그리도 안쓰럽고 아프게 하던 내 소중한 아들이 또래들과 문자도 주고받고, 이성 친구와도 사귀고, 학생회장이 되겠다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며 의욕적인 모습이 되어간거야.

너의 변해가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오른단다.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네가 의젓한 총학생회장이 되어 행사 때마다 인사와 연설을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되었지. 4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고 행복하던 학교생활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졸업을 하였구나. 다른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에 잠 못 이룰 시기에, 대학과 부학장님, 여러 교수님들의 덕택으로 너는 KBS 방송국에 취직할 수 있었던단다.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먼 거리지만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널 보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너와 같이 총무팀에 계신 분들께서도 부족한 너를 너무나 친절히 도와주셔서 엄마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뿐이란단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후배들이 너와 같은 곳에 취업을 하면, 선배로써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는 다짐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고 있는 너를 보면 그 모습도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단다. 주위의 좋은 친구들과 열심히 일할 곳이 있는 네가 오늘도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주렴. 널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호산나대학을 세워 주신 하나님, 학장님, 부학장님, 교수님 그리고 서울교회의 모든 분들께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이전 너도 졸업하고 몸은 떠나왔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단다. 이 큰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엄마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호산나 학교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도할게!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장애인 주일

섬기면 섬김수복

항성일 성도(사랑부)



어렸을 때부터 지나가는 장애인을 보면 저는 왠지 모를 섬뜩함으로 인해 피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장애인들은 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장애인을 피하는 저의 모습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장애인들을 피할까?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의 모습 속에 저의 어두운 모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비록 저는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장애인처럼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제 자신을 장애인처럼 판단을 하면서 살아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장애인이 나타나니, 저의 마음은 당연히 장애인이 싫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중에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후배가 "사랑부에서 봉사하지 않을래요?" 라는 말에 이끌리어 사랑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 속에 있으면서 저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피하고 싫어했던 마음은 제 스스로 쌓아놓은 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면 섬김수복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제 자신의 모습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세웠던 어떤 계획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부에서 장애인들이 찬양을 할 때 제대로 소리도 못 내지만, 열심히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저는 지금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에 대해 생

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조차 없는 모습을 통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저의 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장애인들을 상대할 때 많은 것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랑부에는 학생들이 전도되어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 함께 사랑부에서 봉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에바다부와 사랑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에바다부는 수화찬양(임규현 목사외 명)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Alda Cella)"을 찬양하며, 사랑부는 멜로디언과 기타합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재정성실" 외 2곡을 연주하고 난타연주로 "예수 사랑하심을(W.B.Bradbury)"외 한 곡을 연주한다. 지휘와 지도에는 한민아,박준희,김진경선생이, 반주에는 곽정임 선생이 수고한다.

장애인 주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정호 성도(에바다부)

저는 4세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청각이 상실되었습니다.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아 서투르지만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문화에서 생성된 언어인 수화에 대해 관심이 없고 농아인과 달리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또한 결혼전까지 교회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교제할 때 농문화가 이해되었고, 수화를 늦게 배웠으며 농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인도로 교회에 가서 에바다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교회는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계속 주변만 떠돌았는데 점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8년째 되어갑니다. 그간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맑은 샘물과 같은 생명의 말씀,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교회를 섬기시는 에바다부 가족들의 열정이 전해지는 요즘, 나의 마음은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당하신 것보다 더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생활에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에바다부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옆자리에서 큰 힘이 되어 준 남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하신 것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잘 몰라서 목사님 설교도 잘 알아 듣지 못

동정

- 이종윤목사는 4월19일(화) 한국기독교교회해중재원 개원3주년기념 및 법인설립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4월 20일(수) 송실대 교직원예배에서 설교한다.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전도회(4.17) 한나전도회(4.24)
- 금주의 식사제공: 13교구 김문기 성도 서중숙 권사 (이들 김종민 수술회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종윤 원로목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많은 사역을 위하여
2.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3.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 지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2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